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음 1월 8일) 제222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전주 특례시 지정 '당연'

실제 시 생활인구수 최대 125만774명으로  
 전주 주민등록인구 66만명보다 2배 이상  
 문화특별시 육성 특례시 지정 디딤돌 놔줘야

전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최대 1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정부가 인구 100만명에 기준을 두고 있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전주의 주민등록인구 66만명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전주와 같은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완주를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으로 정부의 특례시 지정에 위한 인구 백만명을 훌쩍넘는다. 또한, 다른 정보통신업체인 KT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가 하루 최대 103만2993명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특례시 지

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전주지역에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각종 행정기관이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주지역의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수는 264개로,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135개), 수원(184개), 용인(128개), 창원(261개)보다 월등히 많다. 이로 인해 전주시의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크게 부족해서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간 역대 정부가 광역시·도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경우 나후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하고 타 시·도와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진단됐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18조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광주·전남은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31조원으로, 전북보다 2배나 많은 수준이다. 더욱,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의 예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고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특례시 지정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특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뻗어나가고 있는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키워낼 수 있도록 '전통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이라는 디딤돌을 놔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확실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주민들은 11일 안성면 죽천리 1242-7번지인근 1410-5번지인근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와 환경법인 비산면 지신고를 하고 토사를 반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인근에서는 25.5톤 트럭으로 수많은 양의 토사를 무단 반출했으며, 밭 주변 산림을 나무 뿌리 등의 불법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개발 허가 없이 토사 무단 반출 무주 안성 죽천리 주민들은 '시름'

25.5톤 트럭으로 반출해 밭 주변 산림·나무 뿌리 등 훼손  
 반출된 토사는 지역 논 객토로 사용... 농작물 피해 예상  
 군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법적 조치 취할 것"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일대가 토사 무단 반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죽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면 죽천리 1242-7번지인근 1410-5번지인근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와 환경법인 비산면지신고를 하고 토사를 반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인근에서는 25.5톤 트럭으로 수많은 양의 토사를 무단 반출했으며, 밭 주변 산림과 나무 뿌리 등을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죽천리 1410-5번지인근에서도

트럭 수많은 물량의 토사를 반출해 지역 논 객토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토사의 불법 반출로 인해 폭우가 올 때면 토사가 주변 논과 밭으로 흘러들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밭 주변에는 2차선 도로가 있어 폭우가 올 때면 대량의 토사가 도로로 유출돼 도로를 점령, 대형 교통사고 위험 발생도 큰 지역으로 제기된다. 게다가 마구잡이식 불법 반출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관광 무주 이미지에 먹칠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

들의 목소리도 높다. 지역주민 A 모(64, 안성면)씨는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광객 K 모(43, 대전시)씨는 "대량의 불법토사 유출이 보기 흉하게 지역 경관을 훼손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개발도 좋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토사 반출허가 신청이 너무 많아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들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에듀파인 미적용 유치원에는 정보공시 지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해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회계투명성 강화 내달부터 도입 의무화 미도입시 정원감축 처분 일부 유치원은 폐원 통보 치원은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위 공시 등을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3월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 에듀파인 도입을

입이 의무화되면 폐원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새학기를 준비하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더불어 학부모들과의 불신만 계속 깊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의 사립유치원들이 1~2월 사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추진해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올해도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이 이뤄질까 하는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은 모두 13곳이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의 전북 개최	4면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16면	- 제61회 그래미 어워즈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